

교회소식

- He is risen!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예배 직후에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 Zoom 을 실행하시고 "Join" 을 클릭하신 후 카톡으로 보내드린 "Meeting 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Email 로 초대를 받으신 분은 "Join Zoom Meeting"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초청 메시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섬기는 사람들

4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5호

2020년 4월 12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33 부활절(1) ----- 다함께
찬송 Hymn	160장(통150장) “무덤에 머물러” ----- 다함께 Low in the Grave He Lay
부활절 특순 The Easter Story	“무덤 문이 열렸어요!” ----- 주일 학교 “The Tomb is Empty!” ----- Children
헌금 및 감사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가복음 16:1-8 ----- 인도자 Mark 16:1-8
설교 Sermon	“내 주는 살아계셔서” -----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170장(통16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 다함께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지난 주 주일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요한복음12:12-33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으시려고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높였으며,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인자가 죽으실 때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도 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광입니까? 밀알의 영광입니다. 밀알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들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땅에서 높이 들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끄는 영광입니다.

자기가 죽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호산나!” 찬송 부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며 섬기는 자에게 자기가 받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밀알의 영광이라면,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모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이 유익하리라 여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해를 당하리라 여겨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이 몇일 후 십자가에 매달라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자기들이 유익할 가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자기들이 살기 위해 찬송하거나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가 죽어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죽이고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죽어 불의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때가 왔다”고하신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산 우리는 우리의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예수를 따르고, 해가 될 것 같으면 버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와 함께 고난과 승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르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누가 귀히 여겨주기를 바라십니까?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따르거나 돌아서지 맙시다.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주를 위해 큰 일을 하려는 혈기조차 내려놓고, 우리 형편과 공로에 따라 계산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무덤에 머문 자에게 부활은 신비로 임합니다. 계산한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며, 그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를 섬기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것은 주님입니다.

<Memo>